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5. 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러,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자금 가상화폐로 조달 확인

- 4.25 러시아 금융감독청장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대응 국제 포럼에서 지난달 22일 발생한 모스크바 테러의 자금조달에 가상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발표

○ 佛, 올림픽 테러 조직 혐의로 남성 기소

- 4.30 언론은 텔레그램에 파리올림픽 기간 중 “순교자로 죽기 위해 폭발물 벨트를 만들겠다”라고 글을 게시한 남성(10대)을 테러 범죄 조직 혐의로 기소했으며, 지하드 관련 서적과 ISIS에 대한 충성 서한도 발견됐다고 보도
- ※ 同人은 이미 이슬람 급진주의 성향 탓에 당국의 감시를 받던 상태였다고 부언

○ 독일, 수도 베를린에서 PKK 지지 시위 해산

- 4.28 언론은 PKK 지지자들이 독일 수도인 베를린의 알렉산더플라츠 광장에 모여 PKK 지도자의 형상이 그려진 깃발을 흔드는 등 불법시위를 하자, 독일 경찰이 개입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보도
- ※ 독일은 '93년 PKK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시위 중 PKK 상징의 전시를 금지

미주

○ 美, 이란과 협력 강화 방침 밝힌 파키스탄에 경고

- 4.25 언론은 美 국무부가 이란과 거래를 고려하는 국가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며, 同발언이 최근 이란과 협력을 강화한 파키스탄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
- ※ 일각에서는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10년간 중단된 이란-파키스탄間 가스관 건설 사업이 재개된다면 미국의 對파키스탄 제재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 부언

○ 美, 테러·범죄 고위험 국가에 총기 수출 통제 강화

- 4.27 미국 상무부는 테러·범죄 발생 고위험 국가에서 오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기, 탄약 및 관련 부품의 수출 허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, 모든 총기 수출에 대한 정밀 조사와 추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

※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△인권침해 요인 사전검토 △고위험 국가로의 수출 불허 △수출면허 유효기간 단축 △무기 수출 조사강화 등이 포함

중 동

○ 후티 반군, 홍해서 미사일로 유조선 타격하여 선체일부 손상

- 4.27 언론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, 러시아 프리모르스스크에서 인도 바디나로 향하던 영국 유조선 「안드로메다 스타」호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도

※ 同 선박은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계속 항해 중이라고 부언

아·태평양

○ 필리핀, 자국船員 홍해·아덴만 해역 여객선 탑승 금지

- 4.25 필리핀 정부는 후티叛軍의 홍해와 아덴만 경유 선박 대상 공격 증가로 피살되거나 납치된 자국민이 23명에 이른다며, 이에 따라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 내 자국민 船員 탑승 금지 명령을 발표

※ 필리핀 이주노동자부는 자국민 船員을 태운 선박이 홍해나 아덴만을 지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쓰도록 船員 인력회사들에 요구했다고 보도

○ 파키스탄 보안軍, 정보기반작전으로 테러리스트 4명 사살

- 4.29 언론은 파키스탄 보안軍이 카이버팍툰콰주 지역 등에 테러리스트가 잠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야간작전을 수행하여 테러범 4명을 사살하고 현장에서 다량의 무기와 탄약도 회수했다고 보도

※ 또한, 파키스탄 연례보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'23년 789건의 테러가 일어나 1,524명의 사망자와 1,463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

佛, 경찰서 대상 이슬람 남성 흉기 테러 사건

- '21. 4. 23 튀니지 출신 30대 남성이 파리 근교 이블린州 랑부예 경찰서에서 흉기 테러를 자행,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, 용의자*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

* 용의자 「자멜 고르헨」은 '09년 프랑스에 입국하여 10년간 불법체류하다 '19년 거주허가를 취득한 이후 랑부예 지역에서 배달원으로 근무

- 검찰은 용의자가 범행 직후 이슬람의 神 알라를 지칭하는 “알라후 아크바르(Allahu Akber)”라고 외쳤다는 증언을 바탕으로

- △지하드 선동영상 시청 △극단주의와 폭력행위 옹호글 SNS 게시
△범행 前 경찰서 답사 등 정황을 확보, 同 사건을 테러로 규정

- 이에, 「마크롱」 佛 대통령은 피해자의 위로와 함께 “이슬람 극단주의 테러(자생적테러)와의 싸움을 지속하겠다”는 뜻을 밝히면서, 예방 명분으로 이슬람 律法 일부를 제한하는 ‘공화국 원칙 강화법’을 추진

⇒ 최근 中東 정세 악화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, 국내 이슬람 커뮤니티 관련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

* 국내 체류 이슬람권(57개국) 인구수는 약 29만명(3.31 기준, 법무부)

< 자생적 테러리스트(외로운 늑대) >

- (정의) 정부 또는 특정 조직에 대한 반감으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, 배후세력 없는 자생적 테러리스트
- (유래) 본래는 1996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키즐라르를 기습한 체첸 반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, 美 극우주의자 엘릭스 커티스가 백인 우월주의자 선동 과정에서 同용어를 사용하며 ‘자생적 테러범’ 의미로 변화
- (특징) △외부지원 없이 스스로 테러 준비·실행 △독자적인 은밀한 계획·공격으로 사전 징후포착 곤란 △주로 ‘소프트타겟’ 대상 ‘로테크’ 공격 자행